

임신과 결핵, 그리고 신체의 이상 신호 생리불순

초경을 갖 치루어낸 사춘기 소녀부터 폐경 직전 여성에까지 흔히 겪게 되는 생리불순.

생리불순이라는 증상 자체는 그냥 두어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생리불순현상은 신체에 질병이 생겨서 나타나는 신체 이상 신호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생리불순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다이어트로 급격히 체중이 감소했다

든지 전신질환이 생긴 경우라든지 생식기 계통의 질환 등 신체에 이상이 생기면 나타나게 된다. 생리불순을 일으키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산부인과를 찾아 정밀검사를 받아 그 원인을 찾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러나 여러가지 정밀검사를 받기 전 성관계가 있는 여성들이라면 혹시 임신이 된 것은 아닌지 체크해 보도록. 원래

임신과 결핵

임신중인데 결핵에 걸렸다면, 결핵약을 먹고 있는데 예기치 못하게 임신이 된 경우면 적잖이 당황하게 될 것이다.

임신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지, 임신중 결핵약을 먹는다면 태아의 아기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고민이 안될 수 없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중증결핵이 아닌한 큰 걱정하지 말고 임신을 계속하면서 결핵약을 복용하라는 것이다. 결핵약으로 사용되고 있는 아이나, 에탐부톨, 리팜핀제재 등은 태아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이다. 단 주사제재인 스트렙토마이신은 태아에게 청각계통에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임신중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일찍 결핵이 진단된 경우라면 보통 결핵환자와 똑같은 치료를 받으면서 정상 임신부보다 더 열심히 산전관리를 받아야 한다.

그 이유는 결핵은 만성소모성질환이기 때문에 영양섭취와 섭생 등을 충분히 받지 않으면 태아가 저체중아가 된다든지 조산되는 빈도가 2배이상 증가되기 때문이다. 신생아가 사망할 가능성도 6배 이상 높아진다.

생리가 불순하기 때문에 임신이 된 지도 모르고 임신 3~4개월이 되어서야 임신사실이 밝혀지는 경우도 가끔 있기 때문이다. 우선 생리불순이 왜 생기는지 대표적인 질병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자궁유착증

소파수술후 생리가 줄어 들었거나 없 어졌다면 자궁유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자궁유착증은 자궁안(내막)이나 자궁입구가 유착을 일으킨 상태이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자궁안에 흠집이 생겨 딱딱하게 굳은 상태.

선천적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임신중절수술을 반복적으로 받

았다든지 계류유산 등으로 임신내용물 이 자궁안에 딱 들러붙어 있어 수술이 어려웠던 경우 잘 생긴다.

임신중절 수술시 임신내용물뿐만 아 니라 자궁내막이 과도하게 제거되어서 생기게 된다. 인공임신중절수술후 생리 양이 상당히 줄어 들었다든지 전혀 나 오지 않는다면 자궁안에 유착증을 의심 하게 되는데 자궁경관 입구만 막힌 경 우에는 생리가 나올 듯하면서 나오지 않고 배만 아프고 골반이 빠질 듯한 증 세가 나타나게 된다. 자궁경관만 막힌 상태라면 외래에서 간단하게 소식자로 뚫어주면 쉽게 치료가 되어 월경혈이 나오게 된다. 만약 자궁안 유착증이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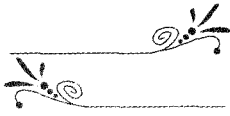
임신중 체중이 11~13kg이상 늘어나도록 칼로리의 섭취에 신경써야 하는데 결핵 약 복용으로 식사를 못한다면 고칼로리 음식, 예를 들면 초콜렛, 아이스크림 등 분 인 입맛에 맞는 음식을 골라 섭취하도록 한다.

분만방법은 일반 산모와 같은데 분만후 신생아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갓 태어 난 신생아는 결핵에 민감하므로 격리하는 것이 좋고 수유도 하지 않도록 한다.

신생아에게 미리 예방적 목적으로 결핵약 아이나를 투여하기도 하지만 효과는 확실하지 않다. 분만을 하고 난 후에도 역시 영양섭취에 신경을 쓰며 결핵치료를 받도록 한다.

본인 스스로의 면역기전을 높이는 것이 결핵치료에는 중요하므로 우울해 하지 말고 스스로 즐거운 마음을 갖도록 하며 아기를 위한 태교음악 등을 즐긴다면 태아 뿐만 아니라 임신부에게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

하여튼 임신부가 결핵에 걸린 경우 힘든 9개월간의 임신기간을 보내야 하므로 임 신을 원하는 여성들은 반드시 임신전 결핵이 있는지 흉부엑스선 검사를 찍는 건강 진단을 정기적으로 받을 뿐아니라 결핵치료중에는 병원을 찾아 안전한 피임방법을 상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자궁유착증이 생기면 생리가 안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습관성 유산이나 불임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유착분리수술을 받아야 한다.

심되는 경우라면 생리직후 나팔관조영술을 찍어보면 자궁안에 흠집이 난 것을 알 수 있다.

자궁유착증이 생기면 생리가 안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습관성 유산이나 불임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유착분리수술을 받아야 한다. 요즘에는 자궁내시경을 이용하여 유착분리수술을 시행하기 때문에 유착된 부위를 찾아 유착분리수술을 정확히 시술할 수 있게 되었다. 수술후 다시 유착이 일어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자궁내장치(IUD)를 2~3개월간 수술직후 자궁내에 삽입하고 자궁내막이 잘 증식해서 올라오도록 여성호르몬제제인 에스트로젠을 약 3~4개월간 복용한다.

대부분의 자궁내유착증은 수술후 임신 성공률이 상당히 높으므로 가능한 일찍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생리혈이 자궁밖으로 흘러나오지 않으면 골반내로 역으로 흘러내려 간혹 골반염증을

일으키는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낭성난소

일년에 서너번 생리를 하면서 생리시기에는 생리량이 많거나, 생리시기가 아닌데도 출혈이 비친다든지 임신을 원하는데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다낭성난소증후군을 가진 것이 아닌가 생각해보아야 한다.

10대 소녀에서도 쉽게 생기는 이 질병을 가진 여성들은 얼굴에 여드름이 많이 나 있고 온몸에 털이 많이 나 있으며 많은 수에서 비만증세까지 지니게 된다.

다낭성난소란 난소의 크기가 정상 여성에 비해 커져 있는 상태로 난소의 피막이 두꺼워져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한달에 한번씩 발육하여 외부로 배출되어야 할 난포(난자를 싸고 있는 낭)들이 정상 발육과정을 지니지 못한 상태.

난포가 난소밖으로 정상 배출되지 못해 미처 못 자란 난포(작은 낭종)들이 난소안에 꼭 차 있게 된다. 한달에 한번씩 정상 난포가 자라나고 터져 나오지 못하므로 정상적으로 생리호르몬 생성이 일어나지 못해서 생리불순에 빠지게 될 뿐 아니라 임신을 원해도 임신이 되질 않는다.

다낭성난소의 경우 우선 호르몬투여로 생리불순을 고쳐 규칙적으로 생리를 하게 해야한다. 규칙적으로 생리현상을 있게 하지 않으면 한달에 한번씩 떨어져나가야 할 자궁내막이 두텁게 자라나

기 때문에 생리기간이 아닌데도 자궁출혈이 계속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신을 원한다면 배란유도제인 크로미펜을 복용함으로써 80% 임신이 가능하다. 다낭성난소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수술요법인 난소 절제술이 필요할 때도 있다. 이외에도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지 심한 다이어트로 급작스럽게 체중이 빠진 경우에도 생리불순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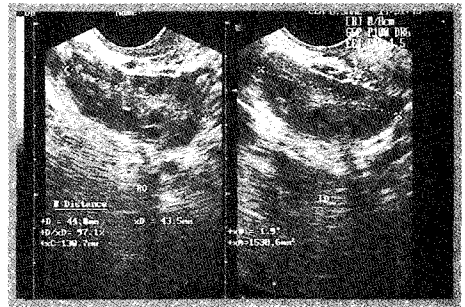
드물게는 위염이나 위궤양치료제를 복용하였다는지 뇌하수체 종양이 생겨 유즙분비호르몬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생리불순이 될 수 있다.

생리불순이 있으면?

고르던 생리가 2개월 이상 안 나온다면 부인과 초음파검사와 월경조절 호르몬검사(FSH, LH, Prolactin)를 체크해야 한다.

성관계가 없는 미혼여성이나 학생의 경우 부인과 내진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랫배를 통해서 시행하는 복식 부인과 초음파를 받아야 한다. 이 검사를 받으면 처녀막손상을 피할 수 있으므로 안심해도 된다. 복식 부인과 초음파는 소변을 참아서 방광이 팽 차야만 자궁이나 난소 등의 장기가 잘 보이게 되므로 소변을 못 참을 정도로 참고 병원을 찾았다면 진료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요령이 된다.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질식초음파검사를 받게 되므로 오히려 방광을 비워야 내부 생식기관이 잘 보이게 된다.



다낭성난소 진주목걸이 모양의 낭종이 팽 차 있다(사진 왼쪽이 오른쪽 난소, 오른쪽이 왼쪽 난소)

초음파검사를 해보면 자궁안의 상태를 알 수 있다. 자궁안에 임신이 된 것은 아닌지, 자궁내막이 지나치게 두껍게 증식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자궁근종이나 혹은 없는지 살펴보게 된다. 초음파검사를 해보면 자궁뿐만 아니라 난소상태도 점검이 된다.

호르몬검사와 초음파검사를 시행하여 월경불순의 원인을 찾아낸 다음 호르몬 주사제재로 생리가 규칙적으로 있게 한다. 이후 경구용피임제재나 크로미펜 등의 배란유도제를 적어도 몇달동안 사용해야 하는데 장기간 치료가 필요할 때도 있다. 치료도중 조바심 낼 필요는 없다. 신체조건이 좋아지면 생리는 치료받지 않아도 저절로 정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



박금자 산부인과 원장 박금자